

“때때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사고 있을 때 팔지 못했고, 시장이 붕괴됐을 때 잡혀 있을 수 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다음이 아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존 템플턴·John Templeton

달러보유시 원화값 급락 때 보험효과 부동산·에너지 등 안전자산 늘려가야

테이퍼링 시기 자산관리

전문가들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예상 금융주, 금리상승시 긍정적 영향 기대 “하반기 귀금속 섹터투자 비중 줄여야”

테이퍼링 시기에 내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되는 테이퍼링 시기에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안전자산 위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달러 비중 늘리고, 금 비중 줄여야

달러를 보유할 경우 증시 하락이나 달러당 원화값 급락에 대한 보험효과가 있다. 주가지수(KOSPI)와 원·달러 환율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만큼 자산을 일정비중으로 나눠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115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달러분할 매수, 1100원 이상에는 적극매수, 1200원 이하에는 원화로 환전해 비과세 환차익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으로 금 투자는 제한했다. 금과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으로 풀었던 돈을 회수할 경우 달러화 가치가 상승해 금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6만7560원으로 1년전(10월 7



〈금 시세 현황〉

	종가(원)	등락률(%)
4월말	63550	-0.2
5월말	68290	0.4
6월말	64120	-1.05
7월말	67540	0.9
8월말	67410	-0.24
9월말	66170	-0.32
10월14일	68320	0.86

만200)과 비교하면 4%가량 떨어졌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 기조에 후퇴가 없는 한 금 가격의 상승도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 귀금속 섹터투자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도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하고 배당투자매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상품으로 꼽힌다. 공모 상장 리츠의 경우 1년에 2번 4~5%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주가 되면 적은 금액으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오피스, 빌딩, 대형 상업 시설과 최근에 각광받는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을 간접 소유하는 효과가 있다. 배당수익 외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주식투자, 금융주 에너지주 유리

전문가들은 주식투자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주 위주의 투자를 권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금융회사의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고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지난 2019년 수준인 25~26% 수준이 예상된다. 금융주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노려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주를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경제 회복 국면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지난 8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실제로 ‘SPDR 에너지 섹터 ETF’나 ‘SPDR S&P 오일앤드가스 이큅먼트&서비스 ETF’ 같은 미국 에너지주 ETF가 최근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위드 코로나 기대가 강해지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대외활동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며 “유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유가 상승에 유리한 업종이 수혜를 받는 환경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국내 경제, 신흥국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 당국 지속대응 필요”

》1면 ‘물가 급상승…美 긴축’서 계속

우선 주식 및 채권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같은 해 6월 5조9000억원 순매도 되면서 주가지수(KOSPI)는 2013년 5월 1994포인트에서 같은 해 6월 1781로 10.7% 하락했다. 당시 미국은 2013년 테이퍼링을 언급한 뒤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했다. 테이퍼링이 언급된 시점부터 외국인이 주식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코스피지수에도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10월까지 6조 3000억원 순매수로 전환되는 듯 하다 테이퍼링을 실시한 2014년 시점부터 순매도로 재전환됐다. 회복됐던 KOSPI도 2013년 2056에서 2014년 2월 1887로 8.2%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외국인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2조647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5월 테이

퍼링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9월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3~2014년 테이퍼링 시기와 겹쳐보면 잠시 전환했다가 순매도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수출액은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개선됐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2013년 5월 1112.9원에서 2013년 6월 1159원으로 4.2% 상승했지만 테이퍼링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013년 12월에는 2055.4원으로 5월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액은 2013년 5월 483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42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2013년 5월 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7.4% 증가한 뒤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각각 36억달러(101%),와 8억달러(116.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

면서 양적완화 규모가 커진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2008~2014)할 당시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는 1조달러에서 4조5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늘어난 양적완화 규모는 4조2000억달러에서 8조3000억달러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게 지속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단기간 늘어난 양적완화규모로 인해 그 영향이 지난 2013~2014년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신흥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국내 경제 여건 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